

◆며느리권씨 일전 5 (지난호에 이어)

영천이씨 농암 이현보의 어머니와 부인 권씨

모친은 권겸(權謙)의 딸 (중윤공파 21세), 부인은 권효성(權孝誠)의 딸 (검교공파 18세)



농암종택

또 최근 발견된 퇴계의 시(詩) 중에 농암과 교유한 것이다 있다.

형님(溫溪 李瀶)과 함께 농암 선생을 모시고 저물녘에 부내[汾川]에서 배를 탔다.

[同家兄陪侍先生 遊屏菴 至晚泛舟汾川]
산사에서 차를 마시고 나온 뒤요 山寺烹茶後
다시 배를 타고 술을 부를 때로세 江船喚酒時
푸른 물결 바단 자리에 넘실대고 緑波攝綺席
어여쁜 기생들 어부가를 불러대네 紅袖唱漁詞
명산 복지라 인간 세상 아니요 福地非人世
신선 풍도는 속세 모습 아닐세 仙風異俗姿
우리들 또한 무슨 여행을 만나서 吾儕亦何幸
덕에 취해 덩실 춤출 수 있었나. 醉德舞微傲

그리고 농암하면 역시 어부가(漁夫歌)이다. 고려조부터 내려오는 것을 개작한 것인데 그중 단가 5수

를 실으면서 농암의 장수의 근원을 찾아본다.

1수 : 인세를 잊은 어부의 한가로운 삶
이동에 시름 업스니 漁父(어부)의生涯(생애)이로다.
인간의 생활 가운데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어부의 생활이로다
一葉片舟(일엽편주)를 萬頃波(만경파)에 띄워 두고
자그마한 배 한 척을 넓은 바다에 띄워 두고
人世(인세)를 다니겠거니 날 가는 줄을 안가.
인간 세상의 일 다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 모르겠구나.

2수 : 세속적 욕망을 벗어던진 자연 속의 삶
구비는 千尋綠水(천심녹수) 도라보니 萬疊青山(만첩 청산)
굽어보니 천 길이나 되는 푸른 물 돌아보니 겹겹이 둘러싸인 푸른 산

十丈紅塵(십장홍진)이 언매나 가겠는고
열 길이나 되는 속세의 티끌(어수선한 세상사) 얼마나
가려졌는가.

江湖(강호)에 月白(월백) 거둔 더욱 無心(무심) 하얘라.
자연 속에 달이 밝게 비치니 더욱 무심하구나(한가롭구나)

3수 : 한가로운 삶 속에서 느끼는 일반청의미(자연의 참되 의미)

青荷(청하)에 바늘 싸고 緑流(녹류)에 고기 끼여,
연잎에 밥을 싸고 벼들가지에 물고기를 쫓아
蘆荻花叢(노적화총)에 비배 매아두고,
갈대와 양새풀이 가득한 곳 배를 대어 매어두고
一般清意味(일반청의미)를 어느 부니 아니라실고.
자연의 참된 의미를 어느 분이 아시겠는가.

4수 : 시름을 잊고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삶

山頭(산두)에 間雲(한운)이 起(기)하고 水中(수중)에
白鷗(백구)이 飛(비)이라.

산봉우리에 한가로운 구름 일어나고 물 가운데 갈매
기가 날아오른다.

無心(무심)코 多情(다정)하니 이 두 거시로다.
아무 욕심이 없음 다정한 것이 이 두 가지로다.
一生(인생)에 시름을 낮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내 평생에 시름을 잊어버리고 너희들을 따라 놀리라.

5수 : 현실 정치에 대한 미련과 걱정

長安(장안)을 도라보니 北闕(북궐)이 千里(천 리)로다.
(자연 속에서)서울(한양)을 돌아보니 궁궐이 천리 밖에 있다.

魚舟(어주)에 누어신陀(나선) 스치 이시라.
(내가 비록) 고깃배 누워 있으나 (속세를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다.

두아라 내 시름 안니라 濟世賢(제세현)이 업스라.

두아라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도다 세상을 구할 어진
인재가 없겠는가.

이제 조선 최고의 장수 가계를 보자니 그 외가 안
동권씨의 유전자도 장수임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장수의 요체는 역시, 철학(易經), 건강(運動), 자립
(勞動), 환경(節制), 후세(讓步), 미래(奉仕), 존경(模範), 무한(精神)의 8대 요소임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소위 100세 시대의 노인이 명심
해야 할 사항과 같다.

1. 철학이 있는 삶을 영위하여, 바른 생활관과 사
생관을 확립토록 하겠다.

2. 국가와 가족등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건강을
위한 운동을 계속하겠다.

3. 꾸준하게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병행하여, 경
제적 자립을 유지하겠다.

4. 환경에 대한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자선과 봉
사에 일조하도록 하겠다.

5. 책임지지 못 할 미래를 함부로 결정하는 어리
석음을 범하지는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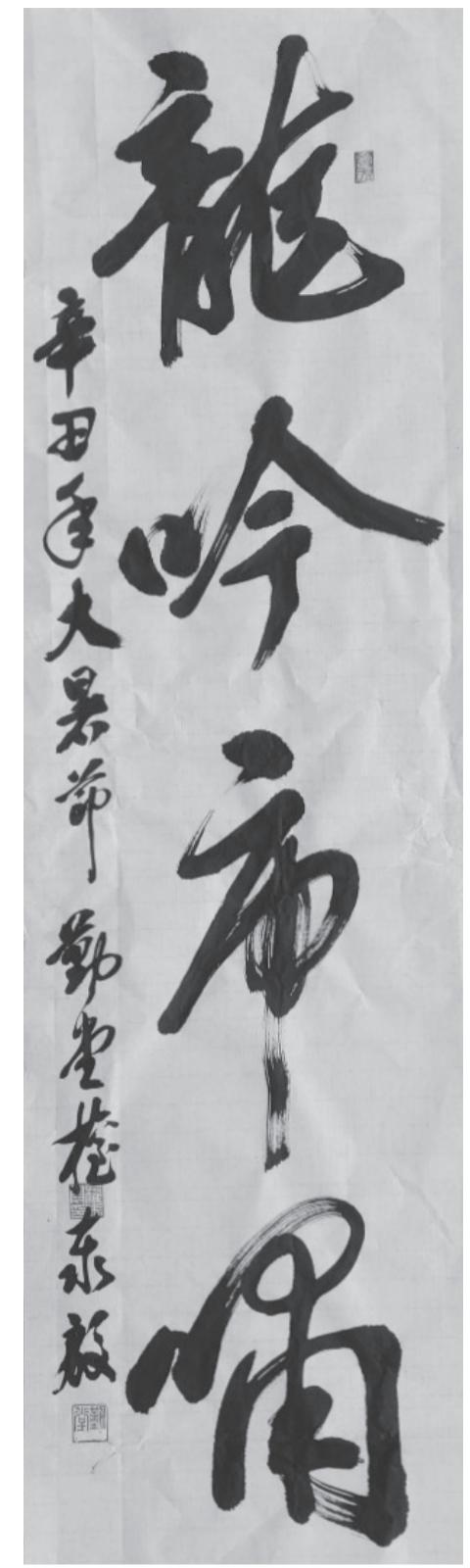
6. 자신의 앞길을 무지한 구시대의 논리로 막거나
누르지 않도록 하겠다.

7. 정신, 성의, 무실, 역행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여
'이신작지' 하도록 하겠다.

8. 인간 존재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정신적 무한성
을 추구하여 나아가겠다.

영천 이씨 농암 이현보와 안동권씨 어머니(중윤
공파 21세), 부인(검교공파 18세)의 양대에 걸쳐 '장
수 유전자'를 합하여 장수기운을 이루었다고는 하
지만, 실제 그 진정한 유전자는 가풍과 교육에 있다.
인간은 단순한 동물적 존재가 아니고 사회적 정치
적 동물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즐겁게 사심(私心)
없이 살리는 마음으로 마주 앉아 대화와 한잔 술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얼마나 있는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 인적자산이 바로 당신의
살아온 삶의 척도이고 평가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
권씨 며느리가 낳은 농암 이현보의 2대의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노인들(地空居士)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강렬하고 교훈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글 권오철 기자)



龍吟虎嘯

용음호소 : '용이 울부짖고 호랑이가 포효하다'
라는 의미이다. 출전은 禅法蘭祖법린의 《續集古今佛道論衡속집고불도논형》이다. 원문은 아래와 같다.

龍吟雲起 용음운기
非蚯蚓之所能 비구인지소능

용이 울부짖으면 구름이 일어나는데 지령이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니고

虎嘯風生 호소풍생

非跛驢之所及 비파려자소급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면 바람이 일어나는데 절
뚝거리는 나귀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辛丑年신축년 大暑節대서절에
勤堂근당 權泰殷권태은 謹書근서

구계(癯溪)를 찾아서(3)

권재중(權在重, 38세, 시중공파 화천군종중)

여우내를 다녀 온 뒤, 허탈감에 빠져 며칠을 허송

했다. 그러다가 그래도 미련이 남아 몇 가지 의문을
풀어보기자 '화산세승'과 '구계유고權溪遺稿', 그리고
백운면사사무소에서 복사해온 '제천마을지' 덕동

리 부분을 들춰가며 하나하나 의문점을 풀어나갔다.

첫째, '구계란 지명이 과연 백운산 기슭에 있는
'여우내'일까?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현공正獻公이 늘 그

막에 '만포(晚圃)'라는 호를 쓰실 때까지의 초호가

구계障溪'였다. 거듭 말하거나 앞 글 '구계를 찾아

서(1)'에서 본 그대로 정현공이 한참 짚었던 시절 구

계에 온거하시며 학문에 전념하셨던 사실 또한 분

명하다. 그 근거자료가 '화산세승'의 기록과 백운산

장'이라는 난관임은 이미 말한 그대로다.

둘째, 정현공이 구계에 은거하신게 된 계기가 무

엇이며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

정현공은 시조 태사공 제27세손으로 1656(효종

7)년에 아버지 사헌부 집의執義(종3품, 차관급) 인

격(格) 공과 함께 이씨의 셋째아들로 태어나셨다.

여덟 살 때인 1663년, 현종4년에 어머니 함평 이씨

상을 당했다. 열네 살이 되던 1669년. 현종10년에

부인 원주원제 원씨와 혼인했다. 원주 원씨는 인조

반정 정사공신 2등과 평원부원군에 봉해진 종이공

(忠獻公) 원두표(元斗 표, 1593-1664) 공의 손녀다.

원 씨는 병자호란 때 어영부사로서 남한산성을

지키고, 이어서 강화부유수, 경상도관찰사, 형조판

서,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지낸 문신이요, 명상

이다. 원 씨의 친정은 여강(지금 여주)이었다.

정현공은 열여섯 살 때(1671. 현종12년)에 아버

지 집의공의 상을 당했다. 그러다가 스무 살 되던

1675(숙종 1)년 제2차 예송禮訟(갑인환국)으로 우

암 송시열이 학경도 덕원에 유배되고, 다시 남쪽으

로 귀양 가게 되자, 만현 한수재(寒水齋)가 은둔생

활을 결심하고, 한양 성남에서 청풍 활강으로 이사

했다는 기록이 "한수재집"과 "화산세승"에 함께 보

인다. 정현공이 구계에 은거하신 때는 바로 그 직후

가 아닐까 추정된다.

셋째, 전국에 은거한 곳이 허구 많은데, 왜 하

필 백운산자락의 구계를 택하셨을까?

은거라 함은 벼슬을 버리고 숨어 사는 것을 의미

한다. 비록 은거한다 해도 친인척이나 벗들과의 왕래는 끊을 수 없지 않은가. 제천 백운산자락은 심산 유곡이라 하나 정현공의 생가인 제천 황강과 처가인 여주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황강과 여주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황강과 여주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다.

넷째, 구계에 은거하신 기간은 얼마나 될까?

"화산세승"에 의하면 정현공은 서른세 살 때(1688,

숙종14년)에 생원·진사과 초시에 급제했다. 구계에

은기하신 지 13년 뒤의 일이다. 초야에 묻혀 지내고

우선 구수애와 구수이를 구수에 瘦水涯 와 구수아
瘦水 丫로 써야 한다는 견해부터 설명해 보기로 한다.
다음에 위에 예를 들어보자.

하나, 철학(易經)과 운학(易經)에 있는 마을이다. 상학동과
운학리에서 흘러오는 두 냇물이 마을 앞에서 합수
하면서 아홉 구비로 흐른다하여 불여진 이름이다.

이는 구절, 샛, 〈덕동계곡, 원덕동계곡, 중리계곡
과 구수에 계곡은 인근에 있는 용하게이나 송계
계곡에 비하면 규모가 작고 유명도도 떨어진다. 하

지만 어름다운 기암과 울창한 숲, 차고 깨끗한 물
은 그 어느 곳에 못지 않다. 특히 원덕동계곡은
'통통소'와 '엄남소'의 깊은 물을 제외하고는 물이
얕아서 아이들이 물놀이하기에 좋다는 구절, 넷째,

〈구수에 계곡은 덕동계곡 입구에 위치한 계곡이다.
원주 쪽에서 오는 지방도와 종주 제천방면에서 오는
지방도가 만나 덕동계곡으로 들어오는 입구(지금
여우내에 해당되는 지역)에 위치하여 찾기 편리

하고 상류보다 계곡이 넓다〉는 구절, 이 네 개의 구
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네 가지 구절에 따라 이를 한자로 쓰면 구수
애구수에 또는 구수아구수 丫라고 쓰게 된다. 구수
구수 丫는 아홉 굽이 물줄기로 표기된다. 애구수 丫
또는 애구는 물기슭 애구자 丫'자기 때문에이다. 하

지만 산골 물 치고 굽이굽이 돌고 돌아 흐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는가? 이를 두고 굽이 구수구수 丫라고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다시 주목할 대목은
세 번째 구절인 특히 원덕동계곡의 '통통소'

와 '엄남소'의 깊은 물을 제외하고는 물이 얕아서 아
이들이 물놀이하기에 좋다고 한 부분이다.

상학동과 운학리에서 각각 흐르던 두 물이 합쳐
진 곳, 물이 넓게 흐르는 탓에 그 깊이가 얕은 곳, 하
지만 울창한 숲속을 누비며 흘러왔기 때문에 그 물
이 차디찬 곳. 이렇게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그 물

가(에涯)와 그 물기슭(에崖)을 더 힘주고 있고 더 품
위 있게 표현하려고 당시 이름 없던 한 선비가 '여월
구구'자와 '시내 계곡'과 '골짜기 계곡'자를 써서 '구
계구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상상이

요. 논리의 비약일까? 따라서 '여우내'를 의미하는
'구구'자를 써서 구수에 瘦水涯, 구수에 瘦水崖, 구
수아